상식의 폐허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기 고
박 함 윗
前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가치는 모르는 자를 냉소자(Cynic)라 불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공한 냉소자들'은 이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효율이라는 계산기 속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며, 타인의 삶이나 자신의 정체성조차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해온 삶의 궤적이자 생존을 위한 사투인 것들이, 성공한 냉소자들의 손에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시즌제 소품으로 전락한다.

타인의 시린 상처는 SNS상의 유희를 위한 가성비 좋은 코스튬이 되고, 수십 년을 지켜온 정치적 정체성은 권력의 요직과 맞바꿀 수 있는 매물이 된다. 오만이 위트로 포장되고 변절이 전략이 되는 이 뒤틀린 성공 공식은 우리 사회의 공적 신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디지털 공간의 '가난 밈(Meme)'은 결핍으로부터 격리된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비정한 가면무도회다. 풍요 위에서 가난을 유행처럼 소비하는 행태는 그것을 실제 생존으로 겪는 이들과의 철저한 비대칭성 위에서 작동한다.

유머라는 그늘 아래 숨어 타인의 실존적 아픔을 우월감의 배경지로 삼는 행태는 대중에게 깊은 모멸감을 남긴다. 가난이 농담의 소재가 되는 순간 그 실체를 짊어진 이들의 고통은 소외되고, 부유한 자들의 경제적 면역력만이 성공의 증거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행보 역시 정치를 가치 구현이 아닌 개인 영달을 위한 비즈니스로 정의한다. 대중은 이 두 현상을 목격하며 내가 버텨나가야 하는 시린 현실과 공동체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앞선 자들에게는 언제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소품이나 거래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결국 타인의 존엄이나 공적 가치를 도구화해도 성취만 거두면 용인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될수록 공동체의 신뢰 자본은 파산한다. 정당한 대가와 소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겁한 성공이 유능함으로 둔갑하여 남게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청년 세대가 이 풍경으로부터 공통된 '나쁜 기술'을 학습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은 SNS 속 재력가의 안하무인을 보며 타인의 아픔을 유머로 치환하는 법을 목격하고, 뉴스 속 지도층의 변절을 보며 자신의 신념을 상황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라 오독하게 된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을 때, 청년들은 사회적 기여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커리어 지상주의를 유일한 이정표로 삼게 된다.

이러한 행태들이 성공한 사람의 여유나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되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선 이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사회의 상식을 규정하는 강력한 공적 메시지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공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타인의 존엄과 공적 가치를 헐값에 팔아치우는 냉소자들의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타인의 삶에 대한 예의를 회복하고 원칙이 승리하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만이 상식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야 할 마지막 사회적 기준이다. /前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선거에 막힌 '연금개혁'

기자 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연금개혁 시계가 멈췄다. 지난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당시 연금개혁의 지속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이목이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쏠려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도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이 '표가 되지 않는다'라며 관련 논의를 미루는 동안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은 작년 3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성사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개혁이란 지적이 있었던 만큼, 여·야는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된 '연금특위'를 출범해 연금개혁 지속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조기 대선과 내란사태 재판 등 정치권 주요 이슈에 밀려 뒷전이 됐고, 연내 추가 연금개혁을 약속했던 연금특위는 작년 9월에 이르러서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을 뿐이다. 이어 연금특위는 지난해 말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활동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년 미뤘다.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를 미룬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표'가 되지 않는 사안이어서다. 기성세대의 부양을 위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리거나,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 상대방 진영이 이를 정치적 공세에 활용할 여지도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연금개혁을 언급조차 않고 있다.

반면, 표가 될 법한 공약에는 여·야 모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치권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제가 그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정부안 마련을 서두르는 가운데, 여·야는 이와 관련한 입법을 쏟아내며 안건 끌어오기에 힘쓰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마련이 정체된다면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금개혁 과제로 '지난해 연금개혁에서 설정한 주요 개혁의 완수'를 제시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부족한 목표다. 국회 참여 없이 독자적인 정부안 마련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0일 (음 12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존 습관의 틀에서 벗어나면 앞이 보일 터. **48년생**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니 변절을 손가락질하지 말 것. **60년생** 손톱이 너무 길어서 업무능력 저하되지는 않는지. **72년생** 초지일관으로 분산투자. **84년생** 취업에 충실.

37년생 일해서 아픈 것이 아니니 꾀부리지 말 것. **49년생** 신용이 최우선. **61년생** 집을 사도 무난하니 오늘부터 차근히 계획을 세워라. **73년생** 친구 간에 과민반응 보이다가 기회 놓친다. **85년생** 스트레스 보이지 말고 명상하라.

38년생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50년생** 정신병원에서 최후를 맞지 않도록. **62년생** 승진 뒤에는 할 일도 많으니 부지런 하자. **74년생** 수동적인 자세는 답답하겠으나 능력이 부족하다. **86년생** 용이 여의주를 물었으나 물이 부족하다.

39년생 조언을 하면 보복의 칼을 가는 사람이 있으니 조언은 금물. **51년생**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사는 무난하다. **63년생** 연인 간에 다툼이 일어 오늘은 헤어질 수 있다. **75년생** 이혼은 정말 신중히. **87년생** 낚시 가서 미끄럼 주의.

40년생 남의 실패를 보면서 비웃지 마라. **52년생** 이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64년생** 세 사람이 있으면 그중 내 스승이 있다. **76년생** 키우는 닭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기쁘다. **88년생**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

41년생 화가 복이 되니 양보를. **53년생** 주말에는 경마장보다는 주말농장을 해보라. **65년생** 건널목 지날 때 제발 핸드폰은 쳐다보지 않도록. **77년생**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89년생** 책에서만 배우는 것만은 아니니 사색해보라.

42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54년생** 친절 하려던 것이 참견이 되어 곤란해지는 날. **66년생** 인생은 쉽지가 않으니 공부하라. **78년생** 가족의 정에 흐르다가 지출로 돈 탕진한다. **90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우니 돈을 사랑하라.

43년생 아침부터 영업이 잘된다. **55년생** 사명감으로 출근하라. **67년생** 경쟁자가 많으나 실적이 좋아 든든하다. **79년생** 양보하고 남의 말 전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듯. **91년생** 예부터 칭찬은 마법의 지팡이라 했으나 칭찬을 남발하지는 말 것.

44년생 저녁에 소득이 높아진다. **56년생** 꾀를 부리면 모가 나고 정에 흐르면 떠나려고 간다. **68년생** 고집이 옹졸함으로 변한다. **80년생** 동업자에게 정확한 계산으로 나누어야. **92년생** 가족에게 보증 부탁은 미덕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45년생 점심때 소지품 분실 유의. **57년생** 형제에게 비난하지 말 것. **69년생** 작은 실력을 너무 과시하지 않도록. **81년생** 통찰력이 있으면 죽음도 피해간다 했으니 임기응변보다는. **93년생** 화재의 조심성은 나와 주변 이웃 서로를 위한 것.

46년생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얻는다. **58년생** 대인관계에서 서두르지 마라. **70년생** 문서정리를 깨끗이 하여 바쁘지 않게 하자. **82년생** 부동산 투자는 발로 현장에 가서 부딪쳐보고 하는 것이. **94년생** 평소에 베푼 덕을 되받게 되는 하루.

47년생 지나친 욕심은 과도한 지출을 낳는다. **59년생** 연인관계에도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야 무난. **71년생** 이웃사촌 간에 다툼 예상. **83년생** 부모님 산소 정비를 계획하여 볼 것. **95년생** 직장인이 업무시간에 개인 전화가 그리 많은가를 반성하라.

김상회의 四季

방생 ①

필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필자의 월광사 신도분들께 방생을 권한다. 방생의 공덕에 관해서도 여러 번 글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게 모르게 짓는 살생업이 만만치 않다. 백팔참회문에 보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을 시켜 한 불선한 일도 참회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실 어부들이 왜 생선을 잡고 도축장에서는 왜 소와 돼지를 잡겠는가?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양적 측면이나 더 나은 맛의 즐거움 때문이기도 하다. 살생의 반대가 방생이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에 고금의 여러 경전에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겼고 불교는 '방생'이라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할 수 없이 지은 불 선한 일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방생은 적지 않은 공덕을 만나게 해준다.

방생하면 대부분 사람은 물고기 방생을 떠올리지만 사실 방생의 대상이 반드시 물고기일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식탁에 흔하게 올라오는 식자재로서 생선과 같은 민물고기나 바다 생선을 많이 접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방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방생뿐만 아니라 덫에 걸린 동물들을 풀어 주거나 다친 데를 고쳐주는 일, 먹을 것을 주는 일도 모두 방생에 버금가는 일이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먹힐 처지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탐심까지 조복 받는 일이기에 그 공덕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단명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경우, 방생은 매우 필요고 우선으로 해야 할 노력이 된다. 여러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방생의 공덕 중에 항상 나오는 것은 큰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여기에 더하여 싸움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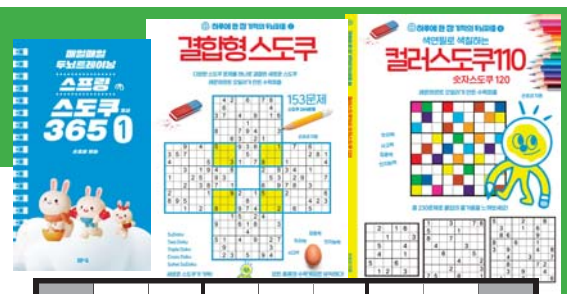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눈팔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7			6
						3		
7		3	4					
						6		4
	3						5	
4		2						
					1	2		9
		1						
3			5	6				

			7				4	
						2		8
		9						6
9	2							7
3								5
7							8	9
5						7		
2		1						
	9				3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4	3	9	6	5	7	2
5	6	7	8	2	4	3	9	1
2	9	3	1	7	5	8	6	4
4	3	2	6	8	9	1	5	7
7	1	5	9	4	2	6	8	3
8	4	9	2	3	1	7	2	6
6	2	1	7	5	3	4	8	9
3	7	8	4	6	9	2	1	5
9	5	6	1	8	7	3	4	2

6	5	2	7	9	8	3	4	1
1	3	7	6	4	5	2	9	8
8	4	9	3	1	2	5	7	6
7	6	5	2	3	1	4	8	9
3	1	4	9	8	7	6	2	5
9	2	8	4	5	6	1	3	7
5	8	3	1	2	9	7	6	4
2	7	1	8	6	4	9	5	3
4	9	6	5	7	3	8	1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